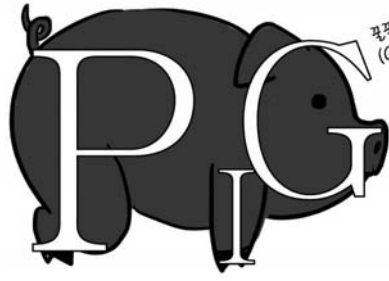


# CAP! EASY SCHOOL

김동준 원장의  
캡이 지 스크



※ 위의 글 및 일러스트 콘텐츠는 김동준 캡이지영어학원장과 이채경 국민대 도자공예학과 학생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전제와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제주흑돼지는 삼국지위지동이전, 탐라지, 성호사설, 해동역사 등 옛 문헌에 제주도에서 길렀다는 기록으로 전해져요. 제주흑돼지는 제주도의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문화적·향토적 가치가 뛰어나요. 제주특별자치도(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특유의 기후와 풍토에 잘 적응하여 체질이 강건하고 질병저항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육지와는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1986년부터 제주축산진흥원에서 제주도 내 재래돼지 5두를 구입, 순수계통번식사업을 시작해 제주 흑돼지 복원사업을 통해 보존관리하고 있어요. 국가 유전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절종위기에 처한 제주흑돼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어 2015년 3월 17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550호로 지정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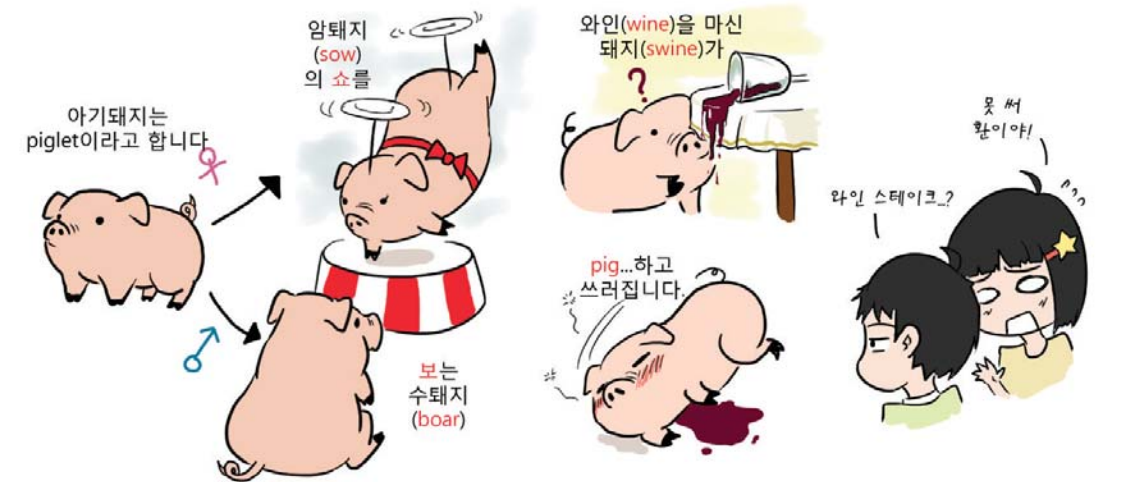
## >> Key Vocabulary

black  
lack  
sleep  
blackout  
slack  
black tea



## >> Key Vocabulary

swine  
wine  
pig  
piglet  
sow  
boar



## 토론과 언쟁 사이의 대선토론

임진표 선생의  
단어로 푸는 쉬운 영어



거리의 벚꽃 개화를 보면서 봄이 생각보다 빨리 왔음을 실감한다. 2017년 봄은 여느 때와는 다른 것들이 많다. 몇 주 일찍 찾아온 꽃 소식과 더불어 '벚꽃 대선'이라 불리는 5월 대선까지 많은 것이 사뭇 새롭다. TV에서는 이미 대선 후보들이 하나 둘 모여 토론회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며칠 전 치러진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면서 토론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 간접적으로 접하던 후보들의 자질들이 토론에 임하는 자세와 임기응변이 필요한 즉각적인 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재미있는 것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우리는 단순히 토론이라고 정의하는 반면 영어에서는 많은 형태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만 보더라도 두 나라의 언어 행위에 대한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iscussion, argument, debate...' 이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구분이 가장 쉽지 않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있는 discussion은 특정 주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결국, 목표 지점은 해결이며 각자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We had a discussion about solving the problem.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에 대해서 의논했다.'

argument는 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견 설득이나 타인의 의견 부정을 하기 위하여 논쟁에 속하지만, 언쟁에 가깝다. 당연히 학술적이나 공식적인 행위에는 쓰이지 않으며 조직이나 개인 간의 다름에 적합하다. After our argument, she ignored me all day. '그녀는 나와 다투고 난 뒤 하루 종일 나를 못 본 체 했다.'

마지막으로 debate의 경우는 공식적인 틀이 있는 격식을 갖춘 토론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선이나 공식적인 토론을 표현할 때 사용하며 발언 순서들과 합의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견 절충이 가능하다. 대선 토론과 학술 토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debate는 승자와 패자를 가린다. We have to hold a debate on that problem. '우리는 저 문제에 관해 토의해야 한다.'

debate는 모든 교육의 종착점이라 할 만큼 교육을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등을 배울 수 있는 최상의 교육방법이다.

청담어학원의 경우는 오랜 기간 꾸준히 debate를 활용한 수업방식을 연구 개발했다. 현재는 모든 수업이 토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여기에 랩을 활용한 IT 기술의 융합으로 의견 개진에 소극적인 학생들도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됐다. 많은 대선후보의 '토론'과 '언쟁'을 넘나드는 각축을 보면서 '토론 교육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웠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세종시 청담어학원, 에이프릴어학원 대표원장

## edm유학센터, 캐나다 공립 컬리지 입학 상담

### 알짜 교육정보

edm유학센터는 캐나다 이민에 유리한 공립 컬리지 관련 학교 입학 상담을 실시한다. 토론토에 위치한 조지 브라운 컬리지(George Brown College)와 센테니얼 컬리지(Centennial College), 세네카 컬리지(Seneca College) 등이 대상이다.

공립 컬리지인 조지 브라운은 요리와 호텔, 디자인, 유아교육 분야가 유명하다. 취업이 활성화된 컬리지 중 하나로 졸업 후 인턴십이나 취업이 잘 이어져 영

주권 취득에 유리하다. 센테니얼 컬리지는 토론토 최초의 공립 컬리지로 대표 전공은 자동차와 중장비, 항공 정비 분야로 공대를 준비하는 유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 세네카 컬리지는 비즈니스, 컴퓨터, 디자인 전공이 유명하다.

캐나다 영주권 획득절차는 지난 2015년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도입으로 점수제로 바뀌었다. 컬리지 졸업 후 약 1년 동안 관련 경험을 쌓으면 영주권 점수 취득이 쉬워 유학생이나 이민 예정자들이 공립대 입학을 많이 준비한다.

김훈탁 기자

## THE kids TIMES Aha!

## “영문 기사로 배우는 한주간 영어”



# One Big Bear Family

Jim and Susan Kowalczyk are taking care of 11 bears in their home state of New York. The couple has been dedicated to rescuing and caring for abandoned and injured animals for more than 20 years, and in 2015, they established the non-profit Orphaned Wildlife Center. “They’re like your children, that’s how much you love them.” Jim said, adding, “This is our life and we’re one big bear family.”

Christine Kim  
Staff Reporter  
(christine@timescore.co.kr)



기사의 해석과 원어인 음성(mp3)은 홈페이지(www.kidstimes.net)에서 제공합니다.